



포프베베 '다기능 아기비데'

# 세면대에 받침대 고정 ... '아기 욕조'로 변신

중소기업에 다니던 화성해 포프베베 대표는 2016년 첫 딸을 얻었다. 육아는 만만치 않았다. 아이가 하루에 5번 이상 변을 볼 때마다 씻기고 기저귀와 옷을 갈아입히는 게 힘들었다. 물티슈로 닦아도 깨끗하게 닦이지 않았다. 평소처럼 세면대 앞에서 아이를 안고 엉덩이를 씻기던 화 대표는 "세면대 위에 아기를 안정적으로 높일 수만 있다면 씻기는 일이 훨씬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 대표가 2017년 6월 아기비데 업체 포프베베를 창업하게 된 계기다. 포프베베는 프랑스어로 '결절한 아기'라는 뜻이다

◆ 좁은 세면대에서 쉽게 샤워  
포프베베의 '다기능 아기비데'는 영유아용 등받이를 세면대에 고정해 쓰는 제품이다. 등받이를 세면대에 고정시키고 아이를 그 위에 올려 씻길 수 있다. 39cm 길이의 등받이는 세면대 밖에 설치해 깨끗하게 세면대를 닦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화 대표는 "작은 세면대에서 아이를 씻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다 탄생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를 안고 씻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손목이나 허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등받이의 기울기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씻는 사이 아이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재질로 제작한 벨트도 달았다. 화 대표는 "사중 브랜드의 5cm 이하 세면대에는 모두 설치 가능하다"며 "등



화성해 포프베베 대표가 '다기능 아기비데'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심성미 기자

39cm 등받이 세면대 밖에 설치 등받이 기울기도 자유롭게 조절 만 3세 아이까지 사용 가능

'유아용 욕조'도 출시 예정

받이는 18kg 하중을 버틸 수 있어 만 3세 아이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을 처음 구상한 건 2016년이지만 완제품은 지난해 9월에야 나왔다. 특히 세면대에 등받이를 고정시키는 부분의 안전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 고정대 부분

이 허술하면 자칫 아이가 욕실 바닥에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화 대표는 "처음엔 끈을 당겨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내놓고 크라우드 펀딩까지 진행했지만 안전성 문제 때문에 모두 환불해 주고 볼트를 조이는 구조로 바꿔 제품을 재출시했다"고 설명했다.

◆ '영유아 세정 전문 브랜드'로 도약  
매출은 미미하지만 조금씩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선보인 뒤 10월에는 제품이 매일 1개씩, 11월에는 2개씩, 12월엔 3개씩 판매됐다. 화 대표는 "아직 '아기 비데'라는 제품이 있다는 걸 모르는 소비자가 더

## 포프베베

|    |                                 |
|----|---------------------------------|
| 설립 | 2017년 6월                        |
| 위치 | 경기 안산시 단원구                      |
| 제품 | 다기능 아기비데                        |
| 특징 | 좁은 세면대에서도 영유아를 손쉽게 목욕시킬 수 있는 제품 |

많다"며 "올해부터 베이비페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영유아 세정 전문 브랜드'로 성장하겠다는 게 목표다. 화 대표는 "유아용 욕조와 샴푸, 입욕제, 욕실 수납장 등을 차례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가장 먼저 선보일 제품은 유아용 욕조다. 욕조 왼쪽엔 샤워기를 쫓을 수 있다. 욕조에 다기능 아기비데를 설치해 아이를 높이고 샤워기 물을 틀면 바로 머리를 감길 수 있는 형태다. 화 대표는 "지금은 집에서 아이를 씻기 때 '거품내는 욕조'와 '헹굼 욕조' 등 두 개를 사용하는데 새로 출시될 욕조와 비데를 함께 사용하면 욕조 두 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 (sjlee@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www.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 노후산단 환경 개선에 2500억 투입

우리회사에 딱! 중소기업책 A to Z

산단공, 오는 3월 공모사업자 모집

올해 남은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정부자금 2500억원이 투입된다. 민간사업자가 매칭 방식으로 투자하는 금액을 합치면 올해 전체 투자 규모는 1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올해 노후 산업단지 우수 청년인력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에 정부자금 2500억원을 투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펀드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오는 3월 11일까지 공모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1년부터 시작된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산단공은 지난 8년간 지식산업센터, 근로자 오피스텔 등 30건에 정부재원 3510억

원을 합쳐 총 1조7608억원을 투자했다. 올해 펀드 투자 대상은 서울디지털, 인천 남동, 경기 반월시화 등 18개 국가산업단지과 대구성서, 부산신평장리 등 30개 일반산업단지다.

투자 대상 분야는 △첨단공장 지식산업센터 물류시설 등 산업집적·고도화시설 △기속사형 오피스텔 문화컨텐츠 등 주거·편의·문화시설 △수용·교통·통신·에너지·지원시설을 비롯한 산업기반시설 등이다. 산재생에너지 및 스마트산업단지 사업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산단공은 오는 18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입주기업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한 사업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황규연 산단공 이사장은 "민간사업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 美 보스턴에 등지 트는 제약사

유한양행·LG화학 법인 세우 연구협력 늘려 신약 기술개발

미국 보스턴에 법인을 세우는 국내 제약·바이오 회사가 늘고 있다. 세계 최대 바이오 허브로 부상하고 있어 신약 물질 발굴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말 보스턴에 두 번째 미국법인을 세웠다고 13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샌디에이고에 첫 번째 미국법인인 유한USA를 세웠다. 신약 후보물질과 원천기술을 발굴하는 데 두 곳의 미국법인을 활용할 계획이다.

LG화학도 이달 초 보스턴에 연구법인인 글로벌 이노베이션센터를 열었다. 올해 이곳에서 통풍 치료용 신약 후보물질과 염증성 질환 치료 물질의 글로벌 임상 시험을 한다. 삼양바이오팜도 지난해 8월 보스턴에 삼양바이오팜USA를 세웠

다. 다국적 제약사, 연구소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약 후보물질과 신약 개발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보스턴에는 하버드대 보스턴대 등 교육기관, 250여 개의 제약·바이오 회사, 20여 개의 대형병원이 몰린 바이오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보스턴 바이오 허브로 부상한 데는 벤처캐피탈 투자금액이 2016년 기준 20억 달러(약 2조 2320억 원) 규모다. 이 지역 교육·의료기관 등에 투입된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비는 5억 달러가 넘는다. 대학, 연구소 등에서 나온 기초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약·바이오 회사 등이 개발해 환자 치료에 활용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의료기관 임상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도 쉽다. 업체 관계자는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통해 파이프라인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모입니다

# 2019 환경닷컴 CEO 포럼

환경닷컴이 주최하고 중소기업부와 달로이트, 한국IoT융합사업협동조합이 후원하는 '2019 환경닷컴 CEO(최고경영자) 포럼'이 오는 25일 서울 중립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다.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2019년 중소기업 주요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박종우 달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조세자문본부 전무가 'CEO가 꼭 알아야 할 올해 개정세법과 절세

방안'을 강연한다. 강현원 삼성생명 수석, 조남철 세무사,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은 각각 기업경영, 세금 리스크 관리, 미래 경영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장소: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 ●참가 대상: 중소기업 및 벤처회사 CEO 및 임원 ●참가비: 11만원 ●문의: 환경닷컴 마케팅부(02-3277-9960)

주최: 환경닷컴 후원: 중소기업부 달로이트 한국IoT융합사업협동조합

# 중소기업 업체 비중은 99.9%지만 종사자는 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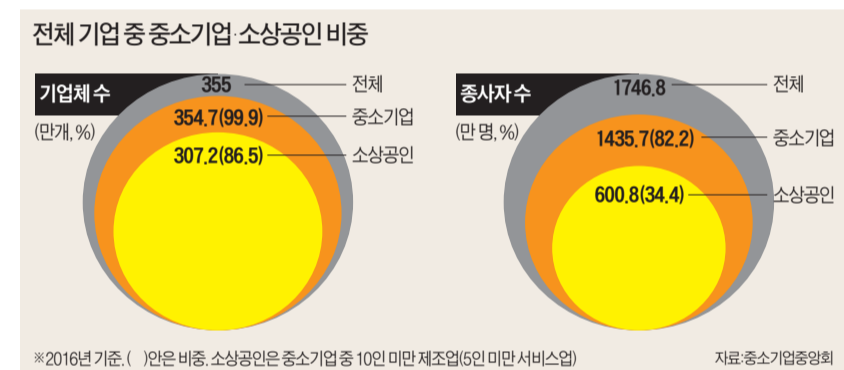
(2016년 기준)

중기중앙회, 中企 현황 발표  
소상공인은 34.4%로 600만명

우리나라 중소기업(2016년 기준) 수는 354만7101개로 전체 기업의 99.9%, 종사자 수는 1435만7006명으로 8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통계청의 2016년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토대로 가공한 중소기업 최신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2015년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해 업종별 매출을 기준으로 기업을 분류하고 사업체(사업체) 대신 기업체(법인)를 대상으로 했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업체 수는 355만9297개다. 이 중 중소기업은 354만7101개이고 중소기업 범위 초과 기업은 3828개다.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은 8만1584개, 소기업은 346만5157개, 소기업



중 소상공인은 307만2104개로 집계됐다. 소기업 중 종사자가 10명 미만인 곳의 소상공인(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다.

전체 종사자 수는 1435만7006명이고 중소기업이 1435만7006명, 중소기업 범위 초과기업은 311만1399명이다. 소기업 중 소상공인은 600만8534명이다.

현황 자료에 나오는 소상공인 규모와 자영업자는 다소 다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나오는 자영업자는 650만여 명이고 국제정 사업자 수(약 720만 개) 중 법인을 뺀 개인사업자는 710만여 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사업체 대신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다 대기업 계열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면서 종사자 수가 이전 88%에서 82%로 줄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中企 R&D에 정부 지원 늘려" 중기연구원, R&D 전망 분석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중소기업 R&D(연구개발) 투자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R&D 투자가 늘고 있으나 대기업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R&D 투자는 2017년 기준 13조691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8.0%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기업 연구개발비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6.6%에서 2017년 21.9%로 낮아졌다. 중소기업 한 곳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같은 기간 6억3000만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46% 줄었다. 대기업 평균(259억1000만원)의 1.3%에 불과했다.

노 연구위원은 "R&D 투자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공동·위탁 R&D 등 개방형 혁신 활동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WWW.NICEDATA.CO.KR
NICE 다인알  
NICE Data & Research, Inc.

## 치킨집 김사장님! 어려울수록 답은 절세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절세 도우미 - 나이스 부가세환급지원 서비스

2018년 2기 부가세 신고기간(2019년 1월 1일 ~ 1월 25일)

**언제나 무료!**

제휴카드 발급 받으면 서비스가 무료

**스마트하게 알아서!**

내가 사용한 카드내역을 알아서 자동으로 분류

**간편하게 한방에!**

복잡한 세무지식 없이도 의제매입, 차량공제, 통산공제도 적격

**용도에 맞게 자동생성!**

직접 신고용 자료 O.K!  
세무대리인 제출용 자료 O.K!

부가세환급지원 서비스 문의 | **1588 - 5659**

나이스데이터 홈페이지(www.nicedata.co.kr)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